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By Jack

논술책을 마무리한다고 시간이 없어 쪽지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한 학생이라도 빠짐없이 답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늦는 점 사과드립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대중 쓴 것이 없습니다.

제 목 올해말에 전역한 93년생 군필자 남자입니다.

보낸 사람 djsl1018 (실행이답이다) 550298

받은시간 2014-12-30 17:58:36

저는 재수를 하다가 재수때 수능 보고 바로 입대를 하여 올해 9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수험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공부법이 좀 막막하여 이렇게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등급은 수학B 5등급 국어 4등급 영어 7등급 탐구는 평균 5등급 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이과로 수능을 보려고 하는데 다른과목은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는데 영어가 특히 엄청 걱정입니다. 군대 갔다온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국어
 윤혜정 '나비효과'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이겨놓고 싸우는 법 (마르고 닳도록 부록)의 지문 읽는 법으로 마똥 공부법 숙지 -> 마르고 닳도록 1권 -> EBS고전문학 (40강 - 윤혜정 외1인) -> 마르고 닳도록 2권 -> 마똥 2번 더 돌리기 -> EBS 추가 (문학 - 해설지와 작품의 전체를 다 공부 / 비문학 - 문제만 한 번 풀고 그 뒤에는 배경지식을 위해서 지문만 모아서 읽음 (주제가 비슷하게 연계되기 때문) / 화작 - 한 번 풀고 끝 / 문법 -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외우는 것이 무조건 좋음 -> 국가대표 모의고사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 신승범 '수능적 해석' 2~3회독 + 고쟁이 -> 다호라 (기출) -> 한석원 모의고사

영어
 Penand.co.kr 문법책 4권 구매 (24000원)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명학 '일리' -> 이명학 '신택스1.0'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기출 유형별 분석(가장 중요합니다. 2~3회독) -> EBS추가 -> 햇님샘 하이퍼 빈칸 주론 -> 각종 모의고사 -> 이명학 '그블'

제 목	안녕하세요
보낸 사람	hgh1755 (모즈님) 546617
받은시간	2014-12-30 20:11:08
<p>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움받은 고3이과생입니다</p> <p>모의고사 성적은 국어2~3 수학2~3 영어1~2정도나옵니다</p> <p>현재 공군사관학교 목표로하고있습니다</p> <p>제가 세운 계획은 국어는 국어의 정석 완강하고 마닿 돌리다가 부족한부분 이비다,훈련도감,형태잡기 방학때 들을 예정이고요 4월쯤에는 하드코어랑 101유형 들을 예정입니다.</p> <p>6월달에 1등급아닌이유들으면서 사관학교 기출풀면서 사관학교 대비하려고 합니다.</p> <p>수학은 신승범선생님커리큘럼 따라가고 있는데 7일중에서 하루는 오답정리하고 그림6일이 남는데 수2기백을 방학때 나가서서 3일로 쪼개보면 첫날은 기본서풀고 강의 듣고 복습 둘째날은 고쟁이밋한완수 세번째 날은 해당단원 기출풀려고 합니다.</p> <p>6월부터는 신유형 고난도 하면서 문해전 크포 병행하려고 합니다.</p> <p>수비는 사농긴했는데 수능적해석과 같이 풀어야할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능적해석과 같이 나가는 기본서를 실력정석하고 있는데 괜찮겠죠?</p> <p>영어는 현재 스킬로만 푸는것같아서 방학때 일리랑 신택스 병행하고 3월부터 공감어법 1.0 리로직 연계교재 하려고 합니다</p> <p>탐구는 물1지1인데 인강커리 타려고 합니다</p> <p>3~6월에하는 스피드 개념은 안듣고 그냥 혼자서 개념다시보고 기출풀려고 합니다</p> <p>논술을 수리는 5월까지는 기출풀면서 기본기 다지고 6월부터 하려고 하고</p> <p>물2도 6월부터 손댈예정입니다</p> <p>보완할거있으면 말씀좀해주시며니 감사합니다</p>	
국어	문제없고 잘 짜인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공부법의 중요성은 20%도 안 됩니다. 무조건 완수하십시오.
수학	<p>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할 양이 방대하므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기백하다보면 수1이 기억안나고, 수2하다보면 적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빨리 돌려서 수학 B형의 전체적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강+기본서+기출까지하면 진도가 빨리 빨리 만나갈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공부를 깊이 하는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인강을 기본서와 빨리 돌리고 그 뒤에 기출을 푸십시오. 기본서는 실력정석은 버리고, 수학의 바이블이랑 수능적 해석을 같이 병행하면 될겁니다. 그 뒤에 다호라 정도 푸십시오. 사실 이것만해도 충분한데 학생들이 이것저것 손대니까 100점이 안나오는 겁니다.</p> <p>수능적 해석 + 수학의 바이블 (처음엔 최대한 빠르게) -> 1번 더 인강 돌리면서 모르는 것만 바이블로 다시 공부 -> 다호라 4회독 -> 각종 모의고사 (한석원)</p> <p>이것만 제대로 하면 100점 받습니다. 괜히 여러 개 손대지 마십시오. 정석은 버리는게 좋습니다. 정석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요새는 답 안나옵니다.</p>
영어	일리랑 신택스 병행하지마십시오. 일리 다듣고 신택스 들으세요. 같이 나가면 진도가 빨리 안나가서 조금해집니다. 그 외엔 괜찮습니다.

<p>논술</p>	<p>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수능 공부할 시간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까요? 3월부터 시작하십시오. 논단기에서 기초 강의 들으신 후에 학교별 기출 들으시고, 나중엔 학원에서 1:1점삭 받으세요.</p>
<p>제목</p>	<p>'야 너 쪽지 그만 보내라ㅠㅠ'는 글을 읽고 이렇게 쪽지 드려요</p>
<p>보낸 사람</p>	<p>kang96 (연대의대 가야지) 457565</p>
<p>받은시간</p>	<p>2014-12-30 20:24:54</p>
<p>2015년6월 과목:표점/백분위 국a:120/82 수b:111/63 영:118/77 화1:46/38 생2:50/50</p>	
<p>2015년9월 국a:117/78 수b:90/32 영:115/73 화1:46/38 생2:53/61</p>	
<p>2015년수능 국a:100/46 수b:96/35 영어:111/67 화1:53/57 생2:47/42</p>	
<p>고3이과 재수하려고 결심했구요 선행반을 들어가는 시기를 놓쳐서 2월에 시작하는 정규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메이저 학원이요 강대나 양지하이퍼나.. 유시험으로 가야해서 들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ㅠㅠ 6월까지 기숙학원 다니다가 모평치고 수능까지 독학하려고 생각중인데요.</p>	
<p>1.국어: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 비문학쪽에서 자신이 없어서 비문학-문학-화법 순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수능날 비문학 읽고 있었는데 지문을 읽어도 머리에 안돌아와서 20분 버리다가 화법-문학 풀고 비문학은 어휘 말고 지문내용을 다 찍었습니다.ㅠㅠ 시간줄이는 방법과 비문학,문학에 대한 인강 추천해주세요.</p>	
<p>2.수학: 수능날 '뭔가 쉬운 느낌인데?'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는데 4점짜리는 거의 다 틀렸더라구요현ㅠㅠ현역 때 ebs수특 3회독 하고, ebs수완 1회독 하고, 자이스토리</p>	

미래로 기출 완독 못하고 왔다 갔다 끄적이다가 이투스에 이의태 수학지옥훈련? 강의 듣고 수능쳤습니다.

친구들 신승범, 한석원, 이창무 들을때 전 ebs만 믿고 갔는데 뭔가 실패한 느낌이 드네요ㅠㅠ 인강 추천해주세요ㅠㅠ 아! 그리고 글보니까 어떤분한테는 한석원t 추천해주시고, 어떤분한테는 신승범t 추천해주시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3.영어: 영어는 풀때 독해지문이 읽는 족족 해석되는 날이 있고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안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수능날 내용이 안들어와서 시간 부족으로 5개 찍었거든요ㅠ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까요? 영어는 과외 했었는데요 과외선생님이 따로 모아둔 기출풀고, ebs1회독 했습니다. 과외 해서 문법이라던지 스킬 커버할 수 있었는데 재수할 때는 인강을 들어볼까 합니다. 문법은 자신있지만 한번더 정리해야 할 거 같구요. 독해는 아무래도 감으로 푸는 거 같아서 이것도 해결하고 싶은데요. 좋은인강 추천해주세요.

4.화학1: 현역 때 백인덕t 커리 탔는데요. 개념은 잘 설명해주시는데 문제풀이 할 때 좀 부족하신거 같아서 다른 선생님 들어볼까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고석용t, 정훈구t, 기상호t 추천해 주신던데 어떠신가요?

5.생물2: 생2 성적이 이런데 생1을 갈아 탈까요?ㅠㅠ 생물은 최정운t, 백호t 두분중에 한분 할 생각입니다. 현역때 백호t 커리 탔구요ㅠ

*바쁘실텐데 길게 써서 죄송해요

국어	<p>시간이 부족한 이유 2가지. 실력이 없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절대적인 실력이 부족하고, 모의고사 풀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부터는 하루에 1개씩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는 어차피 외워야하는 것이 거의 없기에 모의고사 풀면서 틀린 것만 계속 체크해나가면 됩니다. 문제푸는 순서를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p> <p>비문학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Or 박광일 ‘훈련도감’ 문학 - 윤혜정 ‘나비효과’ Or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p>
수학	<p>수학적 센스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인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학생에게는 신승범T를 추천하고 아닌 학생은 한석원 T를 추천합니다. 한석원쌤은 정석이고, 수업중에도 잠담도 거의 안하십니다. 신승범T는 조금 커리가 긴 감이 있어서 시간 많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손대셨네요. 여러 개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공부법 바꾸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p> <p>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1회독) -> 고등수학 개념서는 옆에만 놔두고 한석원 인강 듣다가 고등수학이 나올 때 마다 찾아서 노트 필기 . 부분 부분만 공부 -> 한석원 ‘생각의 질서’ (1회) -> 한석원 ‘알파테크닉’ (2회) -> 다호라 기출 -> 한석원 모의고사.</p>
영어	<p>심우철 12시간 문법 -> 12시간 독해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기출 -> EBS -> 각종 모의고사.</p>

탐구	OT들어보고 맞는 선생님 하는게 좋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제목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zmflaltheK (수능수석) 514301
받은시간	2014-12-30 23:36:54
<p>재수를 문과로 하게될지 이과로 하게될지 모르는 수험생입니다. (문과기준 국영수 322) 문과로하게된다면 이미올려주신거를 참고해서 하겠지만 이과로하게된다면 국어영어 제외는 아예 노베이스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런경우도 컨설팅? 가능하신지요.. 수학을 잘하는편은 아닙니다. 노력으로 커버가된다면 그리하고 싶습니다. 과탐은 다들 무난하다는 생1지1이나 생1지2 하고 싶습니다.</p> <p>목표는 거창하게 설대컴공 or 고사국 으로 막연하게 꾸고있습니다</p>	
국어	국어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똥도록 4회독 -> EBS주가 -> 국대 모의고사.
수학	이익태 '개썰수' + 수학의 바이블 (인강 진도 맞춰서) -> 이익태 '문썰수' -> 4가지 up -> 다호라 기출 문제 풀이 -> 이익태 파일널
영어	영어는 다른 것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탐구	생1 지2 하세요.
제목	
보낸 사람	dbwls0410 (만때) 537922
받은시간	2014-12-31 00:16:03
<p>안녕하세요ㅠㅠ 너무 부담 되시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짧은 조언이어도 괜찮고, 답장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ㅠㅠ</p> <p>올해 수능을 봤고 국수영탐 33323 입니다. 재수 결심했고, 12월 29일부터 선행반 다니고 있습니다.</p> <p>국어는 비문학은 다 맞았는데 문법이랑, 문학에서 우수수 틀려버렸네요...관동별곡은 아예 해석도 못하고 다 찍었고, 시험지 제일 마지막장에 있는 시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30초 남겨두고 찍었습니다ㅠㅠ고3때는 마닿을 풀었었고, 올해도 기출은 마닿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법은 그냥 이겨놓고 싸우는법에 있는것만 외워도 괜찮을까요? 윤혜정의 나비효과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p> <p>수학은 고3때 신승범쌤 커리를 탔지만 제가 고쟁이도 안풀고 미통기에서 적분~확통까지는 개념도 모르고 들어간 상태라 할말 없습니다....ㅠㅠ</p> <p>올해도 신승범쌤 커리 탈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확률부분 정말 기초 개념부터 설명해주는 선생님 없으신가요?ㅠㅠㅠㅠ 고1때 나오는 순열조합 부분부터 설명해주는 강의 알고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ㅠㅠ</p> <p>영어는 해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단어만 보고 대충 감으로 문제를 풀니다. 해석 강</p>	

<p>의에 이명학 신택스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가요?</p> <p>사탐은 생윤,한국사를 할지 생윤, 사문을 할지 고민입니다. 고3때 생윤 사문을 했지만 사문에서 표부분을 결국 정복하지 못해 수능에서 그거 두개 틀렸더니 3등급이 나오더라구요...그래도1년 남은거 생각해 볼때 표는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p> <p>또 제가 국영수를 잘하는게 아니니까 괜히 어렵다는 한국사 건드리기 보다 작년에 했던 생윤,사문하는게 낫겠죠? 그래도 부모님이 재수하는건데 한국사 도전해보라고 하셔서...저도 제 주제에 맞지 않는 고민인건 알지만 갈등 생기네요...</p> <p>안그래도 바쁘실텐데 저까지 부담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좋은일만 생기세요!</p>	
국어	EBS고전문학(40강) ->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마르고 닳도록 계속 -> 중간에 EBS연계 문법 + 박광일 따옴표(5강) 공부
수학	정승제나 이의태 풀커리로 가세요.
영어	이명학 '신택스' -> '리로직' -> 마더텅 기출 (중간에 어법 문제 파트에서 이명학 '공감어법' -> EBS연계 추가 -> 이명학 '그림에도 불구하고' -> 각종 모의고사 추가
탐구	한국사하지마세요. 생윤 사문하고 이지영 풀커리하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질문하나해도될까요..?
보낸 사람	gpjhyj (gpjhyj) 519190
받은시간	2014-12-31 01:00:35
<p>바쁘실텐데 쪽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안녕하세요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3 수학 5 영어 1이예요</p> <p>영어는 거의 항상 1 유지하는데 국어는 항상 3등급이고.. 수학은 내신만 대충 준비했지 수능수학을 제대로 준비한적은 없거든요.. 국어랑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그리고 영어는 단어장을 따로 사서 외워야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기출문제들의 단어를 외워야하나요??</p> <p>좋은하루되세요^^</p>	
국어	재학생이니 인강은 하나만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닳도록 + 이겨놓고 싸우는 법 계속 계속 -> EBS추가 -> 각종 모의고사.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으로 어느 부분이 고등수학에서 연계되는지 확인하고 고등수학은 기본서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그냥 옆에 참고서 개념으로 뇌뎀 -> 정승제 '개념때려잡기' 로 수1부터 진도 나갈 때 고등수학이 나오면 옆에 있는 기본서로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그 부분만 심화적으로 공부할 것 / 개념때려잡기만 3회독 하고 그 뒤에 다호라 2-3번 풀고 수능치면 될 것.
영어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

	<p>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p>
제목	어린양을 구해주세요
보낸 사람	wldnjs2711 (개리개리스파개리) 530318
받은시간	2014-12-31 01:04:45
	<p>문과 N수생입니다 수학 6등급이에요 고등수학듣고 개때잡 수1하고잇구여 정승제 쌤 프패끊어서 킬러문항까지들을수잇는 인강이에요 프패+기출 돌린다는 가정하에 또 뭘하면 1년안에 수학A만점 받을수있을까요?</p> <p>영어 만년4등급입니다T 영어도 기출이 중요한가요? 영어는 꼭 필요한 인강만 듣고싶은데 추천과 4등급에서 만점까지 학습방향이 궁금해요</p> <p>국어는 원래 4등급나오다가 이번수능에 2등급뻗는데 찍어서 맞춘것같아요 체실력 아니라 부정하고 이투스 김민정쌤 프패끊어서 수강중입니다 4등급 국어 공부법알려주세요 국어는 어케공부할지 막막하고 감이안와요..</p>
국어	<p>김민정쌤 풀커리 타세요 그러면서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기출을 수능전까지 3-4번 돌리시고, EBS연계 추가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국가대표 모의고사로.</p>
수학	<p>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으로 어느 부분이 고등수학에서 연계되는지 확인하고 고등수학은 기본서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그냥 옆에 참고서 개념으로 놔둬 -> 정승제 '개념때려잡기' 로 수1부터 진도 나갈 때 고등수학이 나오면 옆에 있는 기본서로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그 부분만 심화적으로 공부할 것 / 개념때려잡기만 3회독 하고 그 뒤에 다호라 2-3번 풀고 수능지면 될 것. 판거 하지 마세요. 적은게 많아보이면 있어 보이는데 사실 공부는 최대한 작은 범위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법으로 고민할 시간이 아깝습니다.</p>
영어	<p>이명학 T OT보면 수능개선위가 30-50%로 연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N제 빠지는거 확정 되었고 단어는 1300개 줄었습니다. (4800->3500) EBS보다 기출과 본인 실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p> <p>이명학 '일리' -> '신텍스' -> '리로직' -> 마더텅 기출 (어법 부분에서 이명학 '공감어법' -> 마더텅 계속 돌리면서 (3회독은 최소 해야함) + EBS연계 -> 각종 모의고사 -> 이명학 '그럼에도 불구하고'</p>
제목	공부법 질문이요ㅠㅠ!! (수정본)
보낸 사람	sunao913 (고대자전16학번) 489728
받은시간	2014-12-31 01:05:26
	<p>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3입니다. 제 공부법의 방향이 옳은지 여쭙보려고 이렇게 쪽지를 씁니다..</p> <p>일단 제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집중이 잘 될 때 2등급, 컨디션 난조일 때 4등급이 뜹니다. 그냥 3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작문은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늘 화작문에서 여러개 나갑니다ㅠㅠ 문학은 거의 안틀리고(고전소설만 어려워합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 지문을 많이 어려워합니다.</p>

수학은 3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범위가 내신범위와 비슷해서 2등급이 났으나 11월 모의고사에서는 수I 파트를 많이 까먹어서 3등급 후반이 났습니다..
 영어는 항상 4등급 극초입니다. 듣기는 아예 안틀립니다. 해석속도와 단어부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탐(사문+윤사)은 3학년 내신과목이라 현재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1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나비효과 문학파트 완강 후 문법을 한 번 정리한 후에 마닿로 갈 생각입니다. 연계교재는 내신 시험 기간에만 바짝 공부하거나 9~10월 즈음 볼 생각입니다.
 수학은 정승재 선생님 커리를 쭉 탈 예정입니다.(수능에 꼭 필요한 고등수학~파이널) 연계교재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9~10월 경에 볼 생각이구요 10월 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풀 생각입니다.
 영어는 현재 듣고 있는 이명학 선생님 문법강의+거의 다 풀어가는 자이스토리 완성편(2학년용)을 끝낸 뒤에 수특을 2회독 할 생각입니다. 그 후에 이명학 선생님 선택스와 리로직을 완강하고, 연계교재와 자이스토리 실전편(3학년용)을 병행하여 풀 생각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10월부터 풀 생각입니다.
 사탐(사문+윤사)은 이지영 선생님 풀 커리를 탈 생각입니다. 연계교재는 주말마다 틈틈히 보고요!

제 공부법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낌없는 수정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국어	EBS고전문학 (40강) -> 화작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EBS랑 모의고사 풀 때 충분히 공부됩니다. 따로 시간 쓰지마세요. -> 마르고 닳도록 기출 -> 중간 중간에 - 'leet'라고 치면 로스쿨 입학시험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기출문제를 다 인쇄해서 과학 기술 지문만 푸십시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해도 직접 하실지는 의문입니다.
수학	EBS심주석T 수1+미통기(45강) 방학 때 다 돌리세요. 하루 3강 하면 15일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로 한 번 더 나간 후에 -> 계속 다호라만 3-4번 돌리고 수능 치세요. 100점 충분합니다.
영어	둘다 문제 없네요.
탐구	

제 목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낸 사람 clmnpjw (rejwel) 533965 받은시간 2014-12-31 01:49:08

삼반수를 계획중인 95년생 재수생입니다
 반수는 지금 하고 있는 알바로 번 돈으로 할 계획인데 원아이드 쌤님이 올려주신 자료로 독학 할 계획입니다 문과입니다 다른 사교육의 도움 없이 올려주신 자료와 순수 체력으로 수시논술 가능 할까요?

논술	EBS에 인문논술 개념이어드리기로 인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정도 한 번 듣고 각 학교별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1년 내내 계속 논술 자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제목	제 커리썸 봐주실수있나요??
보낸 사람	slush96 (천천히) 500423
받은시간	2014-12-31 02:22:47
<p>이과 25224 입니다</p> <p>3월까지 수학 한석원 생각의질서,알파테크닉과 영어단어를 할생각이고 남은시간엔 수능특강을 풀려고하고있고요</p> <p>과탐은 생1화1봤는데 생1지1 으로 바꿀예정입니다</p> <p>국어는 ebs 쪽풀다가 김동욱인강을 몇개들으려고합니다 영어는 영어단어가 제가 약한데 이번수능이쉬워서 이점수나온거라고 생각하구요 영어단어가 좀 틀이잡히면 이명학 선택스나 리앤로를 하려고합니다</p> <p>수학은 수1수2는 알텍바로하고 기백적통만 생각의질서를완강하고 들을생각이구요</p> <p>뭔가 잡다하게 쓰긴했는데 독재를해야되서 물어볼사람도없고 불안한마음에 쪽지드립니다</p> <p>답변 기다릴게요 ^^</p>	
<p>크게 문제 없는데요? 저정도 계획을 세우셨다면 공부법 때문에 망하고 그런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공부계획을 완수하십시오.</p>	
제목	게시글 보고 쪽지 보냅니다. 늦어도 좋으니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pppp_zzzz (ㄸ◉▼◉↗) 477375
받은시간	2014-12-31 03:50:34
<p>안녕하세요 게시글 쓰신거 보고 인상 깊어서 쪽지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문과생입니다. 내신은 2점대 초반 나올것 같아서 이번 겨울방학부터 논술 준비하려고 합니다T.T</p> <p>제 모의고사 등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하든 거의 다 3등급 나옵니다. 수능 때 전체적으로 1등급 받고싶은데 공부법에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p> <p>특히 국어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부터 높으면 2등급 끝자락 낮으면 3등급 끝자락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때 하려는건 윤혜정선생님 나비효과 (비문학 제외)를 듣고 지금 풀고있는 매3비 매3문 끝나자마자 마닿 사서 수능 때 까지 마닿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법에서 추천해주실 인강이나 필요한 인강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추가로 제가 비문학 풀면 거의 다 맞지만 과학 지문만 나오면 항상 한 문제 이상씩 틀리는데 이에대</p>	

해 조언해주실 말 있으신가요?ㅠ.ㅠ

수학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기본 2~3문제는 거의 다 맞지만 4점짜리는 대부분 노가다문제 아니면 손을 못댁니다. 따라서 항상 3등급 나오구요. 지금 과외를 하고있지만 시작한지 별로 안돼서 선생님과 제대로된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번 여름방학 때 수학 인강을 들으려고 했지만 제 공부법과 그 인강은 맞지 않는것 같아서 계속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최근에 미통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개념원리 미통기랑 rpm 미통기랑 자이스토리 수1 하고 있습니다. 쓰신 게시글을 보니 다호라 기출문제 추천하시던데 자이스토리를 이번 겨울방학 때 까지 풀고 다호라로 넘어가는데 좋을까요? 위에 썼듯이 미통기를 최근에 시작해서 그러는데 늦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해도 2월 전까지는 끝내야겠죠? 그리고 매 월 별로 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조언해주세요. 위에 언급했듯이 평소에도 좋아하는 과목이라 점수 잘 받고 싶은데 주변에 수학 열심히하거나 언니오빠가 없어서 수학에대한 조언을 못받아 꼭꼭 조언을 듣고싶습니다ㅠ.ㅠ

영어는 지금 다니는 학원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탐구도 걱정입니다ㅠ.ㅠ 탐구 공부는 오직 내신만 해봤는데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1학년 때 배웠던 사문이랑 3학년 내신 과목인 윤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문은 이번 겨울방학에 개념을 끝내고 윤사는 내신공부하면서 틈틈하게 할 생각입니다. 게시글 보니까 이지영 선생님 추천하셔서 맞보기를 들어보니 정말 좋으신 선생님 같은데 제가 이미 사문 개념 강의를 ebs 들으려고 교재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ebs 선생님꺼 들으려고 합니다. 혹시 개념만 ebs듣고 겨울방학 끝나고부터 이지영 선생님 커리 따르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공부법들에대해 조언 듣거나 질문할 곳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금이나마 쓰신 게시글을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법 및 각종 조언만 해주신다면 진짜 잘 따라갈 자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국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leet'라고 치면 로스쿨 입학시험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기출문제를 다 인쇄해서 과학 기술 지문만 푸십시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과외를 하시니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이와 다호라는 둘다 기출인데, 모두 다 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자이를 수능때까지 계속 푸십시오. 수학과외 선생님 진도 따라가면서 수학의 바이블 예습 복습 -> 자이스토리 계속 풀기 -> EBS연계 풀기 -> 한석원 모의고사 /// 여기에서 더 추가시키려고 절대 하지마세요. 한 권을 여러번 하십시오.
탐구	예. 책임집니다.

제 목 원 아이디 쌤님 ㅠ.ㅠ
 보낸 사람 dhfmql182 (dail ban picasso) 533725
 받은시간 2014-12-31 04:05:03

안녕하세요 아 고민이 너무 많네요..ㅠㅠ
 이제 고삼되는 고이입니다
 그런데 성적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모고 언수의 574?정도나왔습니다 형편없죠 뭐..
 수학은 다 찍어서 칠등급이고요 ㅠㅠㅠ..
 언어 영어 풀때는 마지막에 시간없어서 짜르르 찍고
 하 진짜 저는 진짜 열심히할자신 의지는 충분합니다!!!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할지 할건
 많고 ..계획은 안짜지고 너무 답답해서요..
 제 대략적인 계획은 이번 겨울방학동안 영수중심 사탐도 한번씩 간략적으로?볼 계획입
 니다
 일주일에 한번 국어 모고 풀고요
 그리고 ..가장문제는 일단 수학인데..
 제가 집안사정상 학원을 많이 못다녀요..ㅠ다니고싶어도 못다니는..그래서 영어학원 하나
 만 다니고있는데 수학은 제가 독학으로 수원부터 하고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독학이다보
 니까 막힐때 물어볼사람도없고 학교다닐땐친구들한테물어봤는데 방학때는 그러지도못해
 서 더 막막하고..
 그리고 수학 쌤 기초도 부족한것같은데 그래서 더 힘들고 ㅠㅠ
 원아이드 쌤 TT저한테도 해결책이있을가요
 진짜 ..성적ㅇ오를수망있다면 진짜진짜 열심히할수있는데...
 매일하는 자습시간은 많은것같은데 느는게엄스는것같기도하고 ㅠㅠ수학?..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사탐도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고 아아 그냥 다 모르겠어
 요
 저도 맘같아서 그냥 다 사설인강듣고 학원 가고 하고싶은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그만큼 더 독하게 하고있는데 조금 힘이드네요
 주변에 선배도없고 뭐..이런거 아는사람들도없고 하하하
 무튼..말이 되게 두서없이쓴것같은데..답장부탁드려요!

국어	국어 윤희정 나비효과(EBS) -> 마르고 닳도록 5회독 -> EBS연계 추가 -> 국가대표 모의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 10월부터 하루에 1개씩 풀기
수학	심주석 EBS 수1+미통기 (진도에 따라서 수학의 바이블)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 다호라 기출 문제집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 수능 / 믿으세요. 여러 개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공부법에 잘못된 것 있으면 책임집니다.
영어	Penand.co.kr 문법책 4권 구매 (24000원)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p>이명학 '신택스 1.0' -> '리로직' -> 마더텅 (계속 수능전까지) -> EBS추가 -> 10월부터 각종 모의고사 하루에 1번 풀기 독해만 28문제 (40분 컷 - 40분 넘으면 다 틀렸다고 가정해서 점수 매기며 트레이닝)</p>
<p>제목 이과 예비고3 구원점 해주세요..ㅠㅠ</p> <p>보낸 사람 a7d92ad49aa753b5e99b (mssls0) 523995</p> <p>받은시간 2014-12-31 11:50:25</p>	
	<p>11모 기준으로 국수영453 뜨네요...</p> <p>일단 현황은..</p> <p>국어는 문학에서는 거의 안틀리고 작문, 비문학에서 타작당해요..ㅠ 그래서 빠져서요 매 3비 하루에 이틀치 씩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지문하고 연결하는거 매일매일1시간 씩하고 있어요.. 학원은 주1회로 다니고 있어요.</p> <p>수학....하..중3때까지 수학싫어서 국문학과 간다고 설쳐서 동네 쓰레기고등학교가서 수시로 가야지하는 멍청한 생각가지고 고1을 보내다가 고1 후반에 문과현실직시하고 이과로 왔어요.. 수1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거려서 모의고사도 안풀려요. 수2는 지금 객기로 자이스토리 풀고 있는데 풀다 막히면 답지를 봐요...이거진짜 안좋은거라 들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적통은 토,일 진도 나가고 이썬요. 아직 초반이라서 강 정석 유제,알피엠 풀고 이썬요.. 기백은 진도는 다끝났어요. 근데 기억은 공간도형부터 밖에 기억이 안나요.... (진짜 수학 극하위권이예요ㅠㅠ)</p> <p>삼자루 쌤 수1 좁수 들을생각인데..조언중요..ㅠ</p> <p>영어는 대치동 ㅁㅁ학위 커니 다니고요. 고2 초반에 상대적으로 영어에 투자를 어느과목보다 많이 했습니.</p> <p>저만의 단어장도 만들고있고요, 학원에서 빈칸추론 연습하고, 주 2회 세듀 파워업독해 모의 풀어가고요.</p> <p>제가 구문력 하고 어법이 많이 노답이어서 이명학쌤 신택스, 어법 1.0 들을까 생각중이에요. (리로직은 학원수업이랑 다름게 없어서). ebs 이아영쌤 구문독해 들었는데 그건 좀 너무쉬워서.. 신택스 들을려고요. 글고 이번 2016 강의하고 2015 강의하고 많은 차이 있을까요? 제가 잘몰라서..ㅠ</p> <p>맨날 독서실 제가 마지막 퇴실하고요 열심히하고 있어요 .. 불쌍한 이과 ㅂㅂ조언중주세요...ㅠ</p>
국어	<p>괜찮습니다. 그 뒤에 마르고 닳도록만 계속 돌린 후에 EBS추가하고 모의고사 좀 돌리면 됩니다.</p>
수학	<p>그냥 좋은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객기로 푸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공부할 맛이 안납니다. 차라리 인강을 들으십시오. 삼자루 쌤보다는 이의태 개종수 ->문종수 -> 4가지 Up커리를 추천합니다. 문종수 들으면서 다호라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정석, 알피엠 버리세요.</p>
영어	<p>신택스 1.0 -> 공감어법 좋습니다. 거기다가 Penand.co.kr에서 문법 책 4권 구매 하시고 신택스 들은 후에 마더텅 기출 계속 분석하십시오. 분석하는 과정에 어법 파트너오면 이명학 공감어법 들은 후에 푸시고요.</p>
<p>제목 불쌍한 문과생입니다... 원서접수도 안했어요. 살려주세요.</p> <p>보낸 사람 owl6615 (fatum) 493209</p> <p>받은시간 2014-12-31 13:59:18</p>	

안녕하세요.

서울 4년제 대학(하위권)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다니면서 휴학안하고 그냥 올 F 받아버리고 수능을 봤거든요. (몇 년만에 보는 수능 인데..)

원점수

국B 87, 수A 96, 영어 98, 생운 50, 법정 50

백분위

국B 92, 수A 95, 영어 96, 생운 100, 법정 99

한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유리한 반영대학도 없고 국어 때문에 원서를 아예 안넣었습니다... 무슨 깡이였는지 그냥 하나라도 넣어볼걸 왜 그랬는지 조금 후회됩니다... 문제는 제가 저 성적이 올해 가장 잘 받은 성적이라는거죠.

대학다니면서 모의고사 시간제고 풀어봤었을때 보통 국어는 1등급 하~2등급(상 or 중), 수학 3등급, 영어 2~3등급이었습니다.

사탐은 실수 빼면 성적이 급락하지는 않았구요.

올해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 덕을 엄청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통 난이도였으면 아마 국 2 수3 영2~3 이렇게 뺏을 겁니다.

제가 내년 5월에 훈련소 입소해서 한달간 훈련받고 6월부터 공익근무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소집해제이고, 그해 수능까지 봐도 된다는 것을 허락받았구요.

내년부터 총 3번 수능볼 수 있습니다. 이거때문에 원서접수도 안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에 수학이 너무 싫어서 미술을 했던 적도 있었구요. 물론 미술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참 싫더라구요. 공부를 진득히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수학은 좀 싫었습니다.

문과 입시 정말 험이잖아요.

특히 한의대는 문과생들한테 가뭇에 비같은 곳이라(취직걱정이 덜하므로) 참 들어가기 힘들더라요.

그래서 이과로 준비하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솔직히 이과수학을 잘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3년을 다 쓰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빨리 합격하는게 목표지요.

그래서 문과는 공부량도 적고, 설사 내년 수능을 실수로 망친다하더라도 총 3번의 기회를 다 실수로 망칠거란 생각은 안하거든요.

게다가 내후년에는 입시가 또 개정되어서 노베이스 상태인 이과로 준비하면 많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구요.

<p>수학: 마플 3회독차, 자주틀리고 실수하는 문제들 복습, 실전모의(100분에 모의고사 2개)</p> <p>영어: 필요하면 빈칸문제 정복위해 인강, 실전모의</p> <p>사탐: 기출</p> <p>그리고 영어에서 문법은 그냥 책에 있는 것 전부 다 공부해야 하나요? 솔직히 문법 다 몰라도 해석하는데에는 큰 지장도 없고 그냥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법 위주로만 공부해둬도 괜찮을까요?</p> <p>문과로 계속 하십시오. 이과 답 없습니다. 문과로 한의대 가는데 더 쉽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면 문과로 한의대 가는 학생들이 더 쉽게 간 느낌이 많습니다.</p>	
국어	<p>[입소전]</p> <p>초단기! 국어문법 (B형) -> 이겨놓고 싸우는 법 (마뽀 부록)의 문법 + 마르고 닳도록</p> <p>[입소후]</p> <p>EBS고전문학(40강) -> 윤혜정 나비효과 -> 이후 계속 마뽀</p>
수학	<p>[입소전]</p> <p>중학 수학 필요 없습니다.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수학의 바이블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p> <p>[입소후]</p> <p>바이블 하는 건 좋습니다만 마플하지마세요. 사관학교랑 경찰대 기출 풀 필요 없습니다. 다호라 하세요. -> 이장무 '문해전' 혹은 한석원 '크포'</p>
영어	<p>[입소전]</p> <p>Penand.co.kr문법 4권 구매 -> 마더텅</p> <p>요새는 문법은 어법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 버려서 반드시 다 공부해야합니다.</p> <p>심우철 12시간 문법 + 독해 추천합니다.</p> <p>나머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빈칸은 햇님쌤 하이퍼빈칸 주론 ㄱ</p>
제 목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redsea (1등급을원해) 550479
받은시간	2014-12-31 14:38:04
<p>저는 지방(시골)에 사는 고2 이과생 입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 할 때 수능,모의고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학하고 예습도 전혀 안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은 2등급 초반으로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여전히 편차가 심하네요. 물론 제가 서울애들에 비하면 공부를 많이안하기도 하지만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런것같아요. 주위환경에도 잘하는사람이 없으니깐 자극도 덜 되고요..ㅠㅠ가장 최근에 친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4 수학3 영어4 생명과학4 지구과학3입니다. 모의고사친다고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은 잘 안나네요..내신 시험없는 기간에 간간히 국어-윤혜정의 나비효과,매삼비 수학-신승범 수학적접근,개념원리,썸 영어-단어,듣기,하루에5개 정도 독해 공부를 하긴했는데 미루는 날도 많고 아직까지도 다 못 끝낸 책들도 있어요. 공부는 계속 혼자할 생각인데 지금당장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저는 공부 욕심은 정말 많습니다. 조언 해주시는대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내신은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기본은 수능공부로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 맞춰서 공부하다가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겁니다. 학교내신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모의고사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어 국어 윤희정 나비효과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닳도록 -> 국가대표 모의고사

수학 재학생이 신승범 수능적 해석 듣기에는 벅잡니다. 썬은 버리십시오.
한석원 '알파테크닉' 2번 돌리시고 바로 다호라 푸십시오. 이것만 계속 하면 됩니다. 딴 거 하지마세요. 9월부터는 한석원 모의고사 돌리십시오.

영어 학교에서 하는 듣기만 하고 듣기는 따로 하지마세요.
심우철 12시간 문법 + 독해 (2번씩 돌리고) -> 마더텅 기출 분석 (수능 때 까지 계속) + EBS연계 암기 -> 9월부터 각종 모의고사 / 여러개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탐구 제 글 검색해서 추천 인강 목록 보시고 선생님 선택한 후 OT듣고 최후 결정해서 한 선생님 커리 끝까지 타세요. 학교 수업 믿지마시고요.

제목 공부법 조언 및 재수방법선택(재종 or 기숙)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보낸 사람 f912ab24c257dc3b8f13 (재수받드시성공한다) 550494

받은시간 2014-12-31 16:06:03

저는 고3 문과생이고 재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수능등급은 부끄럽지만 국 수 영 생 윤 사문 5 6 4 44 입니다..저는 현역때 수시만 생각했는데 6개 다 최저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저라도 꼭 맞춰야지!하는 마음으로 국어와 사탐만 공부하게 되었어요..사실 제 게으름 탓이죠.. 수학은 중1때부터 포기한 완포자 수준 이구요. 영어는 고3내내 만년 4 등급이예요 역시 따로 제대로 영어공부한적 없구요..단어 며칠 외우다가 귀찮아서 때려치고. 이명학쌤 신택스1.0 구매했는데 몇 강 듣다가 귀찮아서 안듣구..영어 연계교재의 중요성은 익히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내신 때 수특만 공부하고 그 외의 교재들은 귀찮은 탓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디다. 그렇게 영,수를 버리고 국어와 사탐만 공부했는데 국어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주위 친구들이 연계교재를 열심히 파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져서 중요한 기출은 버리고 연계교재만 파게 되었죠..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9평을 봤는데 4등급 이더라고요..그래서 그때 아..내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싫어서 마닿을 샀는데 미루고미루다가 10월 초중순이 되어서야 겨우 마닿을 손대게 돼서 1회독하고 끝났습디다. 사탐은 생윤,사문 이지영T 프리패스로 전 강좌 들긴 했는데 문제는 강의 듣는거 미루다가 조금해지니까 하루에 4-5강씩 몰아듣고 그랬었어요. 그래놓고 공부 열심히 하고있다는 착각 속에 1년을 보냈구요..그리고 저는 내신 기간,수능직전 제외하고 단 한번도 주말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ㅠ.ㅠ 학교에서만 그나마 안자고 열심히하구요.. 5월이후엔 남친도 생겨서 주말에 데이트한다고 바빴습디다...이게 저의 고3 모습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수능을 망칠 수 밖에 없던 생활인 것 같아요..그래서 후회가 너무 커서 제대로 후회없는 1년을 보내고자 재수 결심하게 된건데 각 과목 공부방법과 재수방법선택에 있어서 감이 안와서 이렇게 쪽지 보내요. 국어는이번 수능에서 화작은 다맞고 문법을 1문제빼고 다틀렸고 독서,문학은 뭐 고루고루 다 틀렸어요. 수학은 완전 수포자구요. 영어는 딱 4등급 정도의 실력이에요 듣기는 다 맞구 독해는 그냥 대강대강 감으로 푸는? 그리고 사탐은. 생윤이 정말 통수와 말장난이 심한 것 같고 사문은 제가 수학교자다 보니까 표푼이를 못해서 둘다 다른과목으로 바꿀까하다가 리스크가 크다고들 해서 생윤만 윤사로 바꿀까싶네요..사문 표2문제 재수하면서 열심히

<p>꾸준히하면 극복 가능할까요? 또, 저같이 게으르고 자기 통제가 잘 안되면 기숙학원이 답일까요?? 강남청솔기숙이나 양지메가 생각중이긴 한데요ㅠㅠ아 정말 길게 썼는데..읽어보시구 공부법조언 및 기타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p>	
<p>기숙학원이 낫긴 낫겠지만, 어디서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고 안하는 학생은 안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p>	
국어	<p>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마르고 닳도록 1회독 -> EBS고전 문학 (40강) -> 마르고 닳도록 2회독 -> 박광일 '따옴표 (문법 5강) -> 마르고 닳도록 3회독 -> EBS연계 -> 국가대표 모의고사.</p>
수학	<p>중학 수학 필요 없습니다.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정승제 '개때잡'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 개때잡 3회독 이후에 다호라만 계속 파세요. 딱거 하지말고요.</p>
영어	<p>영어 -> 이명학 풀커리 타세요.</p>
탐구	<p>각 과목이 그게 그거입니다. 운사 생운 하세요. 뭘 택하든 결국 자기 노력입니다.</p>
제목	<p>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p>
보낸 사람	<p>jhjiang0814 (uber) 538364</p>
받은시간	<p>2015-01-01 04:32:50</p>
<p>이번 15학년도 수능을 치룬 현역입니다. 현재 반수를 생각하고 있고 이번 수능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표점/백분위/등급</p> <p>국어B 124/89/2 수학A 123/82/3 영어 121/84/3 세계사 62/87/2 동아시아사 62/85/3 아랍어 52/70/4</p> <p>국어는 이전 모의고사에서 1~2등급 초반을 유지했었습니다. 2/4분기까지 기출과 EBS를 병행하다가 그이후부터 9월까지의 EBS위주로만 하였고 9월부터는 각종 사설 모의고사와 기출오답분석 EBS위주로 하였습니다. 수능전에는 EBS연계만 보았습니다.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30분은 남았었으나 이번수능에는 시간내에 겨우 마킹을 완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지만 주로 틀린부분은 급하게 풀 문학보다 되려 화작문에서 다량 틀렸습니다. 이전까지 화작문에서 틀려본적이 없어서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화작문 자이스토리 한바퀴 돌린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시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또는 문학에서 1~3문제 정도 틀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번은 비문학에서만 틀리고 한번은 문학에서만 틀려 모의고사 오답을 통한 피드백이 다소 힘들었습니다.</p> <p>수학같은경우 2~3등급이 나왔었습니다.삼자루 선생님 인강과 EBS교재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솔직히 수학을 제대로 한것은 9월 이후 인 것 같습니다.수학에 별다른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9월까지 강의만 듣고 혼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보거나 기출을 분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적분과 통계기본 개념을 제대로 끝낸것은 9월이며 이전까지 통계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급한마음에 수학을 제대로 시작했고 빠르게 개념을 완성한 이후 기출문제 풀이와 파이널 모의고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손도 못대던 30번 문제와 같은 문제도 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수능에서는 풀</p>	

지 못했습니다. 10월~11월에 기출과 사설을 풀면 평균적으로 2~3문제 정도 틀렸습니다. 기출은 분석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풀었습니다. 모르는 것과 틀린 것을 체크하고 반복해서 풀었고 파이널을 시간을 재며 푼 후 오답을 하는 정도였고 개념은 지속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서 1~2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어법, 글의 순서, 빈칸추론 순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어의 경우 2월까지 독해기출을 3권 풀고 계속 EBS만 하였습니다. 8월쯤 새로운 지문을 연습하고자 독해기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어법의 경우 학교수업을 통해 보충하고자 하였고 기출위주로 감을 익혔지만 수능때 틀렸습니다. 듣기는 EBS 고교 영어듣기를 한번 풀어본 이후 따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때 한문제 틀리더군요. 영어는 전체 공부량 100중 EBS의 비중은 90정도였습니다.

사탐의 경우 1~2를 유지하였습니다. 동아시아사는 2학년때부터 하였고 세계사는 내신위주로 하다가 6월모의에서 사문대신으로 보았는데 2등급이 나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과목 무도 학교 수업과 보충수업으로 개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EBS와 기출을 풀어보고 전체적인 개념정리는 3번하였습니다. 워낙 자신이 있었던지라 전체 공부량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랍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반수를 하게되어 올해 전공으로 불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제2외국어를 불어로 할까 아니면 아랍어로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통틀어 학원을 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부터 고2중반까지 수학과외를한 것과 고3때 4개월정도 논술학원을 다닌것이 그나마 제대로된 사교육 경험(?)입니다. 그외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을 주로 학교수업과 인강을 통해 보충하였고 거의 자력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주변사람들이 반수를 할 때 학원을 다녀볼 것을 권유하는데 다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공부해와서 학원 수업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어의 경우 어머니께서 학원을 보내신다고 하여 가기 싫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자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없어 저의 문제점을 찾지 못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할 것을 받아서 하는게 편하고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공부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학원을 가는 것이 옳을까요?

국어	EBS고전문학 (40강) -> 마르고 닳도록만 계속 -> EBS추가 -> 9월부터 각종 모의고사 매일 1개씩 풀고 피드백만 국어에 큰 시간 투자하지마십시오.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제대로 안한게 패인 같습니다.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정승제 '개때잡'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 개때잡 3회독 이후에 다호라만 계속 파세요. 딱거 하지말고요.
영어	EBS비중은 40정도로 잡는게 좋습니다. 올해 개정은 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이명학 '공감어법' -> 마더텅 어법 부분 -> 이명학 '리로직' -> 순서, 빈칸추론 -> 이명학 '신크스' -> 나머지 부분 -> 마더텅 2번 더돌리기 -> EBS연계 추가.
탐구	탐구 학교 수업으로 수능준비 잘 안되죠? 사설 인강 들으세요. 제 글 검색해서 수능 추천 인강목록에서 선생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2의	아랍어 하지말고 불어도 하지마세요. 베트남어하세요. 도입된지 3년차라서 쉽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강 선생님 따라가세요. 베트남어>아랍어>불어 불어는 절대 L L
학원	학원 간다면 독학재수학원으로 가는 것이 학생 성향에 맞겠네요.
제목	재수결심한 학생입니다.
보낸 사람	gogoyun11 (happyet) 501664
받은시간	2015-01-01 16:49:13
<p>안녕하세요 ^^ 많은 쪽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p> <p>일단 저는 올해 수능을 친 고3학생이구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p> <p>재수하기 앞서 제가 왜 현역때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재수를 성공할것같아서 계획을 세워봤는데 올바른 길이 맞는지 전문가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p> <p>제가 작년에 실패한 이유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강에 중독되어서 2.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해서 3. 꾸준히 공부하지 않아서 <p>인것같아요.</p> <p>모의고사때 언수외는 평균 2~3이었고 사탐은1~2였습니다.</p> <p>근데 수능에서 언수외사탐 평균 3.5가 나왔습니다.</p> <p>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받아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p> <p>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때 저점수 나온게 당연한것 같습니다.</p> <p>일단 제가 작성한 학업계획은 1월~2월 종합반 개강전까지</p> <p>국어는</p> <p>수능에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것과 고전문학이 약한것같아</p> <p>김동욱 이것이 국어다 17장</p> <p>권규태 수능국어의 정석 27장</p> <p>윤혜정 EBS알짜고전문학 40장</p> <p>를 수강하려고 하구요</p> <p>수학은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돌릴필요가 있을것 같아서</p> <p>정승제 수능에 꼭 필요한 고등수학 27장</p> <p>심주석 수1, 미통기 개념 60장</p> <p>수학교과서 병행</p> <p>을 하려고 하구요</p> <p>영어는 단어와 문법이 급선무인것 같고, 수능에 대한 감각을 잇으면 안될것 같아서</p> <p>로즈리 grammar zone 80장</p> <p>경선식수능단어, 능률보카, 수능기출영단어</p> <p>매3명</p> <p>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요</p> <p>맞게 세운 계획일까요?</p> <p>시간계획은</p>	

공부시간 14시간은 확보

국어4 수학6 영어4

6시간 잠

헬스 3시간(왕복시간포함)

밥등등 1시간

으로 잡았어요.

목표는

국어

인강 예복습 잘하기

수능국어에대해서 원론적인 개념, 풀이방법, 접근법을 충분히 숙지하기,

국어의 기본개념(문학, 문법), 어휘력, 고전문학

수학

인강 예복습 잘하기

개념정리노트

연습장에 풀기

수학의 기본개념, 고등수학

영어

단어, 문법

이렇게 국영수 위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고 해요.

사탐은 작년에 친 생운과 윤사를 또 칠것이라서 종합반 시작하고 부터 학원수업만 충실히 따라가도 소화 할수 있을것같아서요. 일단 급선무가 국영수 인것같아요.

그리고 2월부터는

국어

학원수업예복습

(그럴리 없겠지만)부족하다고 느끼면 마르고닿도록

수학(적어도 하루에 70문제!sky기준)

학원수업예복습

(그럴리 없겠지만)부족하다고 느끼면 기출문제집 한권

영어

학원수업예복습

사탐

학원수업예복습

현역때 실패한 이유가 학교수업도 제대로 예복습 못했으면서

인강 이것저것듣느라 결국 인강복습도 못하고, 학교수업복습도 못하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분량속에 허우적대다가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끝난것같아서

이번에는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학원다닌 재수선배에게 물어보니 학원수업만 충분히 따라가도 좋은 성적 얻을수 있다고 하길래

종합반 개강전에 이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 보충한다음

종합반 개강후로는 완전 학원수업에만 집중에서 하루살이처럼 오늘 배운것 오늘 복습안

<p>하면 죽을 심정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이렇게 제 스스로 계획 짜 봤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충하고 수정할 부분을 보완 해 주셨으면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짐 인강에 중독되지말자. 학원다니기시작하면 이제 인강은 빠이!! 학원 수업에 충실하자. 자습시간을 엄청 많이 확보하고, 학원 예복습을 주로 하자. 철칙. 그날배운 것은 그날 복습한다!! 그날 궁금한 것은 그날해결한다!! 적어도 다음날 까지!는 반드시 해결한다. 반드시 혼자 많이 고민한다!</p>				
<p>일단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계획을 세우면 실패합니다.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데, 하루 14시간 공부에 6시간 자면서 1년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잠 많이 안자고 몸을 괴롭히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7~8시간 자는 계획으로 다시 짜세요. 작심삼일이 되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딱딱함은 유연함을 절대 못 이깁니다.</p>				
국어	<p>윤혜정 고전 -> 김동욱 이것이 국어다 -> 학원 수업 따라가면서 마르고 뚫도록만 -> 박광일 딱옴표 (5강 - 문법)</p>			
수학	<p>교과서 말고 수학의 바이블로 하세요. 교과서가 좋다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p>			
영어	<p>너무 긴데요... 심우철 12시간 문법이나 이명학 공감어법으로 대체하십시오...80강은 너무 깁니다. 이명학 공감어법 -> 마더텅 계속 나가다가 빈칸, 순서 하기전에 리로직 듣고 마더텅 하십시오. 기출만 계속 돌리세요 이비에스랑</p>			
제목	<p>극하위권인 동생 공부법 문의드립니다ㅠㅠ</p>			
보낸 사람	<p>jami92 (땅땅3번세트) 239467</p>			
받은시간	<p>2015-01-01 16:52:37</p>			
	국A	수B	영	생1 화1
고2 3월	3	7	5	4 7
고2 11월	2	8	6	7 6
<p>예비고3인 동생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반수해서 타 대학 의대에 재학중이어서, 모든 과목에 걸쳐서 인강이나 문제집 푸는 것만으로는 혼자서 감을 못 잡는 부분은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이상 학생들 조언은 해줘봤는데 이 정도 등급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질문 드립니다...</p>				
<p>1. 국어 어렸을 때 책을 읽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도 3등급 이상은 꾸준히 나왔다고 합니다. 2~3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이 워낙 낮으니 수능에서 언어라도 1등급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은 전혀 없고, 제가 기출 문제집을 잠깐 풀렀던 적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등급으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아이니 무작정 기출을 돌릴 수도 없을 것 같</p>				

고....

2. 수학

등급으로 보시다시피 아무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수학A로 돌려야하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ㅠㅠ 일단 자주 언급하시는 정승제 선생님의 고등수학 강의로 고등수학을 한 번 돌리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한석원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었기에 한석원 선생님 프리패스를 결제해준 상태입니다. 알파테크닉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생각의 질서라는 중위권 대상의 강의가 새로 나왔더군요.

고등수학 인강 - 한석원 생각의 질서 2번 반복 - 기출 문제집 반복 - 모의고사 이렇게 타면 되려나요??

참고로, 수학은 제가 여러 학생 과외 경험이 있어서 모르는 문제나 약한 부분은 직접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한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 질문을 받아줄 수도 있고요.

3. 영어

뜯어먹는 영단어 1800을 어머니와 여러 번 병행한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놓은게 있어서 하루에 3일치씩 2번 정도 더 돌리면 뜯어먹는 영단어 1800은 완벽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어 이외에는 문법이나 독해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저 5-6등급 수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성적표를 검토해보니 듣기에서는 2문제 이상으로는 안 틀리더군요.

4. 과탐

과탐은 제가 최정윤 선생님 강의로 현역 때 생물1 50을 맞았어서, 생물1은 최정윤 선생님 풀커리를 타게 할 생각입니다. 과탐은 여러 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목만 정하면 인강 선생님 정해서 풀커리 타면 될 것 같네요

**국영수과 모두를 인강을 돌리게 되면 학생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ㅠㅠ 하루에 거의 10개에 육박하는 인강을 듣게될텐데 그게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과탐을 제외하고는 인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문법 인강 말고 문법서를 한 권 사셔서 2번 정도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은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쪽지가 많이 같 것 같은데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어	EBS고전문학(40강)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났도록 계속 돌리고 -> EBS추가 -> 각종 모의고사/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보이고 재학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정도 커리 클럼이면 아주 적절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학	이의태 '개썰수' + 수학의 바이블 (인강 진도 맞춰서) -> 이의태 '문썰수' -> 4가지 up -> 다호라 기출 문제 풀이 -> 이의태 파일
영어	Penand.co.kr 문법책 4권 -> 심우철 12시간 문법 + 독해 2번씩 돌리고 -> 마더텅 기출 분석(수능전까지 계속 돌려야 합니다. EBS연계줄어드니까.) -> 어법 부분 앞에서 이명학 '공감어법' -> 빈칸, 순서 앞에서 이명학 '리로직' -> EBS추가 -> 이명학 '그블'
제목	공부방향좀 잡아주십시오
보낸 사람	fbe4326a6c228c2df9ff (야가사) 537662
받은시간	2015-01-01 17:16:34

<p>안녕하세요. 논술에도 관심이 많아 논술 글 부터 챙겨본 예비고3입니다. 저의 11월 시험 점수는 23313이렇게 점수가 나왔구요.. 국어는 2등급 겨우 걸쳤는데 제가 생각한 국어 문제점은 아직 문법 개념이 아예 안되었는것 같고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약한 것 같습니다.문법은 공부를 안했고 문학 비문학은 매3문 매3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닿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또한 인강은 이근갑 풀커리를 탈 예정입니다. 수학은 사실 제가 가장 못하는 과목인데 수능기출플러스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저기3등급이 나와있지만 사실 수학점수는 44점입니다. 수학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영어는 계속2등급이 뜨다 이번에 90점 맞았는데 3뜨더라고요. 제가 2학년 때 이명학의 선택스를 듣다가 다 못들어서 책만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법문제에 약한 것 같습니다. 사탐 1등급은 생운인데 스카이에듀 프리패스가 있어서 이지영 쌤의 풀커리를 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사는 강민성 선생님을 듣고 있습니다</p>	
국어	<p>마닿은 모든 거의 기본이 됩니다. 기출이니깐요. 이근갑 풀커리 + 마닿 + EBS + 국대 모의고사만 하면 충분합니다. 문법 - 초단기! 국어 문법을 추가해주세요.</p>
수학	<p>문과겠네요. 수능기출플러스 던지십시오.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정승제 ‘개때잡’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 개때잡 3회독 이후에 다호라만 계속 파세요. 판거 하지말고요. EBS권이 안해도 됩니다. 이것만하세요. 이것만해도 차고 넘칩니다.</p>
영어	<p>Penand.co.kr 문법책 4권 -> 심우철 12시간 문법 + 독해 2번씩 돌리고 -> 마더텅 기출 분석(수능전까지 계속 돌려야 합니다. EBS연계줄어들입니다.) -> 어법 부분 앞에서 이명학 ‘공감어법’ -> 빈칸, 순서 앞에서 이명학 ‘리로직 -> EBS추가 -> 이명학 ’ 그블 ‘</p>
탐구	<p>문제 없습니다.</p>
제목	<p>예비 고3 겨울방학 계획과 1년 공부방법</p>
보낸 사람	<p>shk9702 (성여담) 545024</p>
받은시간	<p>2015-01-01 19:29:30</p>
<p>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3 문과생입니다. 일단 고1 고2중반까지 클래식 작곡을 준비하다가 집안형편상 그만두게 되고, 이제 겨우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학원을 초등학교 이후 다닌 적이 없고 음악을 핑계삼아 공부를 열심히 안하는 바람에 공부방법조차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고3입니다 ㅠㅠ 학원이나 사설인강은 형편상 어렵고, 최대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과는 예술계통인 문화예술경영학과 쪽을 생각중이라서 수학은 상관 없지만 국어 영어를 정말 잘해야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신은 국어영어 5~6 등급이구요, 모의고사는 국어 3 4등급 왔다갔다 하는 편이고 영어는 3등급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국어는 현재 나비효과 수강중이며, 자이스토리 국어 개념어 완성이랑 단권화 독서 b형, 꿀특강 문법도해책을 사서 풀고있습니다. 영어는 빠바 구문독해와 이비에스 마법노트 수강하고 있고, 보카 어원편을 끝냈습니다.</p>	

<p>국어는 비문학, 문학이 많이 취약하고, 영어는 어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어단어를 외우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고 확실한 독해가 안되는 느낌입니다. 하루 공부량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공부량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p> <p>수많은 쪽지에 힘드실텐데 엄치없이 보내네요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p>	
<p>아닙니다. 꼭 제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교 시절 무료 급식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ㅠㅠ 혼자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p>	
국어	<p>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믿고 이것만 하세요. 딱 건 다 버려도 좋습니다. 나비효과 듣는거 완강하시고 -> EBS고전문학(윤혜정외1인) -> 마르고 났도록만 계속 3회독 (이겨놓고 싸우는 법에 -지문 읽는 법을 숙지하신 후) -> 초단기! 국어문법 -> EBS추가 -> 국가대표모의고사를 포함한 각종 모의고사 9월 이후 하루 1개씩</p>
영어	<p>Penand.co.kr 문법책 4권 구매 (24000원)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p> <p>영어는 사실 인강 하나 들으시길 바랍니다.</p> <p>이명학 '신택스' + '리로직' -> 마더텅 기출 계속 혼자서 분석 -> 사실 모의고사 9월 이후 하루 하나.</p> <p>신택스와 리로직만 계속 돌려도 충분합니다.</p>
제목	안녕하세요.. ㅠㅠ
보낸 사람	whtjdrua (겍이ㅋ) 544621
받은시간	2015-01-01 19:44:28
<p>안녕하세요 일반고 문과 예비 재수생입니다.</p> <p>수시로 특히 입사로 넣었다가 수시 6광탈했어요..; 내신은 3.2</p> <p>수능은 국/수/영/동아시아/세지/베트남 5/6/5/5/5/8에요.. 백분위는 42/36/51/39/47/5</p> <p>목표는 웃기지만 고대에요 이번에 정말 맘먹고 열심히 하려고해요</p> <p>글과 답변 올리신 것들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p> <p>1. 저번에 올리신 글중에 군필자 형은 경선식 영단어 봤다고 하셨는데 경선식 '강의' 들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책보고 혼자 외우신건가요??</p>	

2. 최근 올리신 쪽지 질문 정리글 중에 첫 사진 저장 상황이 같은거 같은데.. 선생님께 서 처방해주신 커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별 어디 진도 빼고 있어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ㅠ

3. 그리고 사회는 그나마 조금 아는 동아시아사랑 다른거 아무거나 해볼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커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서요.. 언제 시작해야되고..

4. 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2외국어는 좀 무리겠죠? 그냥 사탐을 열심히하는게?..ㅠ

5. 그리고 인강 살 때 정승제 개때잡이라든가 심우철 12시간 시리즈는 2016버전으로 하려니 강의 업로드가 느려서.. 2015 버전으로 하는게 낫겠죠??

6. 영어 듣기는 언제부터 하면되고 어떤걸로하는지.. ㅠ 참고로 영어 듣기 17문제중 거의 9문제 정도 틀려요..

저같은 수험생들 도와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혼자 외워야 합니다. 단어 암기를 강의 듣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만 외우면 됩니다.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2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시면 말씀드릴게요 ^^. 제가 찾기가 힘드네요.

3 동아시아사 - 권용기 생활과 윤리 - 이지영

4 제 2외국어는 5월부터 하세요. 더 빠르게도 말고 더 느리게도 말고요.

5 아뇨. 그냥 2016으로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새로운 것을 못이깁니다.

6 영어듣기는 Ebs에서 17문제 중 16개 나옵니다. 고교 영어 듣기와 인수만 들으면 됩니다. 교재 나오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 20분씩 월~금 들으면 5회독 가능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 목 공부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suyeon0111 (ㄱ쓰마이웨이) 505845
받은시간 2015-01-01 22:15:4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 재수를 하게 된 문과 여학생입니다.
쪽지 그만 보내라고 하셨지만... 하도 막막해서 어쩔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ㅠ ㅠ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답장 꼭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지금 강남대성 본원의 선행반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일하게 있으면 안 될것 같더라구요...

올해 수능 성적은
국B 90점 2등급
수A 96점 1등급
영어 91점 3등급
한국사 21점 5등급
세계지리 40점 3등급
프랑스어 45점 3등급 이었습니다.

국어는 제가 고1때부터 항상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와서..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고3때 ebs 문제만 한번 푼 정도? 정말 문법도 아는거 거의 없고 안긴문장 그런거 뭔지도 몰랐습니다. (학원수업들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도 무척 오래걸리고 그냥 집에서 혼자 풀때도 시간 거의 안남습니다. 한 5분 이내로 남는것같구요.

수학이 정말 저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지드려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수학 때문입니다.) 수능점수는 96점이지만 저건 찍어서 맞은 게 많기 때문에..실질적으로 2-3 등급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념이 좀 가물가물한 상태이고, 조금이라도 심화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못풀니다. 교육청 4점짜리 정도만 나와도 조금 풀다가 막힙니다. 강대 수업을 듣고 있으면 이해 안가는 부분도 많고..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응용력이 약한것인지?) 누가 풀어주는걸 봐야만 아 저렇게 하는거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수학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거의 안했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고 3때 한건 수능/평가원 기출 풀기(미래로)가 전부입니다. 기출을 풀 때도, 이렇게 푸는게 맞는 건지 몰라서 불안한 상태로 그냥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노가다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습니다.

영어는 단어가 많이 약한데 고3때는 문맥으로 대충 때워버리고 단어 공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단어 묻는 문제를 다 틀렸습니다. 작년에는 ebs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수일치나 분사 고르는 것 같은 쉬운 문제는 푸는데 관계사는 조금 헛갈리기도 합니다.

한국사는 최태성쌤 개념인강만 한번 완강한 상태에서 수능봤고(ebs, 기출 등 아무것도 안함) 세계지리는 ebs강의랑 수특 수완 푸는 것으로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제가 외국어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내신수업들은것과 ebs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일단 강대 수업 플러스 정규반 시작 전까지 07년도 수능/평가원 기출부

<p>터 보려고 했고, 수학은 신승범쌤 pre수능적해석부터 듣고, 영어는 강대수업+ 영어단어 외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는지라 자습시간이 그리 많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과목은 강대에서 해주는 것으로 주로 해결하고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p> <p>요약하자면 수학은 커리큘럼을 좀 풍부하게, 나머지 과목은 좀 가볍게 짜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장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p>	
국어	<p>수업계속 따라가면서 남는시간에 하루 30분씩만 마닿 풀면됩니다.</p> <p>초단기! 국어문법이라는 책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십시오. 80P정도 될겁니다.</p>
영어	<p>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p> <p>거기다가 심우철 12시간 문법 수강하세요.</p>
수학	<p>수능적 해석을 듣긴하지만 사실 이정도면 21,29,30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결국 이걸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딴 건 하지말고.</p> <p>고등수학은 들을 필요 없으니 옆에 기본서 개념원리 놔두고 수능적해석 들으면서 어려운 것 나올때마다 필기하세요.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해야합니다. 문과에서 킬러문제를 제대로 못맞추는 학생은 고등수학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적 해석하면서 다호라만 푸세요. 이것만 4회독 해도 100점 못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뒤에 Ebs추가하고 (연계를 못느껴도 하세요. 하는게 무조건 도움 됩니다. 믿으세요. 시간 없다는 핑계로 딴 거 하지마시고) -> 그뒤에 한석원 모의고사.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결국 21,29,30싸움인데 그건 기출을 통해 자신이 얻어야 합니다. 고쟁이도 제대로 푸시고요.</p>
제목	<p>혹시 지금도 쪽지 받으시나요 ㅠ 수능초짜과고생인데 조언부탁드려도 되나요</p> <p>보낸 사람 n_h_0602 (의예과16학번) 550780</p> <p>받은시간 2015-01-01 23:59:24</p>
<p>안녕하세요 수능을 처음 접해보는 과고생인데요 (학교에서 관련내용도 배워본적이 없고 심지어 모의고사도 학교에서 안쳐요 ㅠㅠ)</p> <p>정시나 수시논술로 의대가는 것을 목표로 아예 이번에 졸업을 하고 재수학원을 가서 지금 선행반을 다니고 있는데요!! 커리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p> <p>1.과고를 다녔지만 수학개념도 잘 없고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석원의 알텍으로 개념을 잡으려합니다! 선행반숙제도 있고 주말에 현장 이창무T,강호길T수업과 숙제도 해야되서 뽀뽀하긴 한데 1월말까지 기본정석연습문제(실력보다 기본을 택한게 실력이 중간중간에</p>	

막혀서 시간이 오래걸려서요ㅠ)를 풀고 나서 1월~3월에 1회독을 하고4월에 기출문제 n회독을 시작하면서 다시 알텍 2회독을 하려고합니다.(재종반 숙제와 강호길,이창무T숙제복습다하면서요 ㅠ)좀 많이 빠빠할 것 같은데 수학이 자신이 없으니 마음이 안놓이네요 ㅈㅈ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하거나 주의할점이 있나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합니다만

아, p.s ㄱ,ㄴ,ㄷ유형 정말 어떻게 풀어야될지 감이 안잡히고요 참거짓증명?판단하는데 30분씩생각해도 판단이 명확히 안서요,,ㅠㅠ 그리고 미적분문제는 계산속도도 느리고 ㅠ ㅠ기백은 워낙 잼병이라 공간적 사고가 잘 안되구요 ㅠ

2.국어는 문법을 제대로 배워본적이 없어서 전형태T인강들으면서 틈틈히 적용해보려고 하는데요! 김동욱T현강들으면서 매일매일 반회차 정도씩 아침에 집중해서 풀고 수학이 완성되는대로 기출문제집 마닿?인가를 n회독하려고 하는데 충분한가요?

3.영어는 ㅠㅠ 예전에 토플공부를 했어서 잘할줄알았는데 착각이더라구요. 대강 이해는 되지만 고난이도 지문으로 갈수록 엉키고 해석이 잘 안됩니다 ㅠ 고정재T현강 듣고있고요 ㅠ 인강으로 이명학T 신택스 1.0>리로직>신택스2.0?하러하는데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할지, 중간에 연습은 어떻게해야할지 여쭙봐도 되나요 ㅠㅠ 단어장추천도요 ㅠ

아그리고 문법?어법?두개가 다른건가요?토플공부할때 문법을 따로안해서 문법용어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ㅠㅠ 수능을 위해 두꺼운 문법책을 찾아서 암기해야되나요?수능문법문제 한문제인가 나오는데 수능에 나오는건 쉽게 나오던데 ㅠ

4.과탐은 화1생투 할예정인데 화1은 산염기중화반응이 험이더라고요 ㅠ 16번부터인가 그문제들은 하나하나정성적인 방법으로 풀면 안되고 꼼수?를 써야한다는데 이건 인강으로 배우는 건가요?또 생투같은 경우 어떤 기본서로 암기하는게 좋은가요?하이탑밖에 모르는데 하이탑은 수능을 위해서는 좀 방대하다고 하더라고요!!ㅠ

이상 질문이 꽤 많은데 죄송하구요 ㅠ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주변에 수능으로 대학간사람이 거의없는 상황이라 ㅠ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수학	<p>이창무 T따라가고 한석원 안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은 버리고, 꼭 버리세요.</p> <p>이창무 T따라가면서 수학의 바이블로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고등수학이 부족하다면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 하루 3강 9일에 완강) 듣고 나서 고등수학 기본서는 옆에 놔두고 고등수학 부분 나올 때마다 노트에 필기하고 그 부분만 공부하시고요.</p> <p>그리고 학원 강의 계속 따라가면서 다호라 푸십시오. 강의만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마지막엔 한석원 크리티컬 포인트 강의 하나 듣고 한석원 모의고사 푸십시오.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도 지나친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만 하세요.</p>
국어	<p>에 아주 충분합니다. 마닿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마닿 홍보대사 절대 아닙니다. 마닿 추천할 때마다 100원씩 받았으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었을겁니다.</p>
영어	<p>책 사서 하는건 중간에 포기하기 쉽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p> <p>신택스 1.0 -> 리로직 -> 마더텅 기출 계속 돌리세요. 마닿처럼. 이건 그냥 풀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문제 유형과 지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유형에서 답이 몇 번이 많이 나왔는지 따지세요. 그리고 어법문제만 모아둔 부분이 있을건데 그거 하기전에 이명학 공감 어법 들으세요. 신택스2.0까지 듣는건 인강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마더텅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이명학 '그블' 정도로 마무리하고 계속 모의고사만 푸세요.</p>

<p>탐구</p>	<p>셀파요.</p>
<p>제 목 보낸 사람 받은시간</p>	<p>안녕하세요 ^^ 독학장수생이 질문드려요 ^^ shinoosu (멘봉의정석) 370439 2015-01-02 02:40:34</p>
	<p>질병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치료에만 전념하다가, 몸이 괜찮아져서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93년 생입니다. 인생 구제할라던 올해에 꼭 좋은 성과를 내야할것 같은데요..T T 중학교~고2때까지는 내신시험에서 반에서 8~3등정도 했었던 같고요. 수능은 자퇴하고 고2때만 시험삼아 쳐봤는데, 그때 433 44등급정도 나왔던것 같네요.. (문과입니다) 고2 이후로는 공부를 좀 쉬었었고요.. 수능도 안쳐봤습니다. 벌써 거의 4년전 이야기군요..T T 국어는 대충 짚어서 4등급정도 맞는 실력이고요.. 특히 비문학은 좀 풀겠는데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내신국어 공부도 별로 안해서 그런지 문학쪽이 고역입니다. 특히 시는 읽을줄도 모르고, 아는 작품도 없고— 단어도 모르고,표현도 모르고, 선택지의 개념들도 모르고요.T 고전은 그냥 아랍어고요. 수학은 고2때 정승제 개념강의만듣고 수능쳐서 3등급 맞았긴 한데.. 지금다 잊어버렸고요. 영어는 기본적 단어나, 구문 파악은 다 되는데, 독해할때 짹짹읽히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읽을때 네이티브처럼 영어로 읽어야하는지, 한글로 해석해서 읽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전 수능에서의 독해법이나 문제풀이 방법도 모르고요 사탐은 고2때 사회문화랑 윤리 공부했었는데 4년전이라서 다잊어버렸고요. 전체적인 일년동안의 커리썸 추천받고 싶네요...T 수시 논술도 준비해야하는지 걱정되고요..T 사정상 독학을 해야되는데, 독학 채수반을 운영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 여기서 광고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사정 봐주시고 혹시 어디에서 운영하시는지좀 알수있을까요?T</p>
	<p>그냥 부산에서 운영합니다. T 광고가 될 수 있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답변해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서 항상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기때문이지요. 어디서 하시든지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p>
<p>국어</p>	<p>고전부터 들으면 지치겠네요. EBS 윤혜정 나비효과 -> EBS고전문학(40강)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마르고 닳도록만 계속 -> 초단기!국어문법 -> EBS추가 -> 국가대표 모의고사.</p>
<p>수학</p>	<p>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정승제 ‘개때잡’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 개때잡 3회독 이후에 다호라만 계속 파세요. 판거 하지말고요.</p>

영어	이명학 '신택스' -> '리로직' -> 마더텅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 중간에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 사셔서 읽으십시오. 보석같은 책입니다.
탐구	사문, 윤사 하셔서 이지영 선생님 풀커리 타십시오.
논술	EBS들으시려면 '인문논술개념이어달리기' 사설인강 논단기 '김윤환T' 오르비에 제 자료. 책으로 출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공부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보낸 사람	dwr25 (todoamor2016) 550814
받은시간	2015-01-02 04:15:04
<p>공부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번 11월 모의고사 결과로 국어 3등급(80점) 수학 1등급(92점) 영어 1등급(9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p> <p>저번9월 모의고사 때는 국어가 93점으로 1등급을 찍었는데 갑자기 3등급으로 곤두박질쳐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ㅠㅠ</p> <p>특히 자꾸 문법에서 나갑니다ㅠㅠ 문법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는 탓인지 정리가 잘 안된 탓인지 6문항 중에 3문항 이상을 틀리네요...하.. 문법 정리가 잘된 인강이 있을까요?? 국어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여 문학 작품 뒷부분 시, 극부분을 자꾸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기출문제로 실전연습하는 게 좋을까요....걱정입니다. ㅠㅠ비문학은 지금 현재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커버가 되는데 화작문에서 계속 나갑니다. 국어 문제집으로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봤는데 여타 기출과 다른점이 있나요???</p> <p>수학은 현재 과외 수업을 받고 있고 자이스토리 수I 을 풀고 있습니다. 신승범 선생님의 수능적 해석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방학때는 기출정복이 목표라 자이스토리만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많이 추천들 해서요...!! 걱정입니다.</p> <p>탐구는 한국사와 윤리와 사상을 선택할 건데요! 윤리는 이현 선생님 강의를 현재 듣고 있는데, 한국사가 걱정입니다. EBS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 90강짜리를 1학년 겨울방학 때 완강 해서 속성으로 한국사자격증1급을 맞습니다..그러나 단기로 해서 기억력은 증발되고.. 1년이 지난 지금 거의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다시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기는 그런데 추천할 만한 사설 강의가 없을까요 ㅠㅠ?? 한사람 커리를 쭉 타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p> <p>P.S 현재 제가 특목고에 재학 중이라 내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면담 결과 연 고대는 입사제 내신으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 넣어볼 만 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학교에서 외부강사가 오셔서 하는 논술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본기와 스킬을 기르고 싶어서 1,2월에 논술인강을 들어보려고 해요.. 혹시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ㅠ? 많이 써보는게 답이라고 하는데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p>	

국어	박광일 '따옴표' (5강) 먼저 들으십시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은 운혜정 나비효과 완강하십시오. 그리고 마똥 계속 푸십시오. 그냥 기출의 바이블 같은 책임니다. 중간에 문법이 부족하다싶으면 마똥 부록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문법정리를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초단기!국어문법 (읽습니다.)사서 읽으세요. 그리고 화작은 마똥기출풀고 EBS풀다보면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게 아니라서 강 기계적으로 풀면됩니다. 9월 이후에는 각종 사설 모의고사 다 사서 하루에 1개씩 푸세요.
수학	수능적해석 너무 많아서 다 못듣습니다. 재학생에 과외까지하면. 과외를 끊고 한석원 '알텍' 을 듣고 계속 다호락을 풀던가. 과외를 계속 한다면 혼자서 자이와 수비만 푸시고 뒤에 한석원 모의고사 돌리세요.
국사	설.민.석
제목	바쁘신거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ㅠ
보낸 사람	tkdcn1010 (가버낫) 494918
받은시간	2015-01-02 15:41:58
예비 고3입니다	고2 3월부터 지금까지 영어 모의고사를 거의 한회도 안풀었습니다 ㅠ 학교에서 하는거 빼고.. 3월에는 95점 2등급/ 6월에는 80점후반이었는데 몇등급인지 기억이안나네요../9월은 80 후반 2등급이었고 11월에는 몸이 안좋아서 못했습니다 거의 1년가까이 영어놓고있다가 다시시작하려고 독하게 어휘끝5.0을 샀는데 이게 거의 하루에 2~3시간씩 잡아먹으니까 부담스럽더라구요 ㅠ 그래서 기본기부터 잡으려도 어휘끝보다 조금 쉬운 단어장하나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좋을까요? 그리고 영어공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너무 놓고있었더니 갈피를 못잡겠네요
영어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 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 (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영어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사서 읽으시고 (이건 강 소설책이라서 시간날 때 짬짬이 읽으면 됩니다.) 당장 이명학 '신텍스' 들고 '리로직 들고' 마더텅 기출만 계속 돌리세요. 거기에 EBS추가하고 9월부터 모의고사 계속 돌리면 됩니다.
제목	정말 죄송한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T 열심히 할게요!
보낸 사람	dmg04084 (민할배) 489950
받은시간	2015-01-02 15:56:00

안녕하세요, 원아이드 쌤님. 저는 예비 고3이고 작년 11월달에 국수영 각각 344 받았습
 니다. 국어는 비문학과 화작문은 많아봐야 3개 정도 틀리지만 문학에서 최소 4개이상
 틀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가 겨울방학때 문학은 권규호 16개념 듣고 매3문학 풀고
 비문학은 매3비 한번더 돌리고 3월달 쯤에 마닿에서 하라는 대로 할거구요.
 수학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지금 기출문제집 미래로 사서 수1부터 풀고 있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인강을 들어야할지 모르겠구요..
 TT
 영어는 자이스토리 영어독해 2학년 기출은 책앞에 계획표대로 하고 있고요 작년 수특책
 은 한번 공부해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공부할때 구문이란 단어 공부하려고
 한문장씩 해석하고 답지랑 매치시켜보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단어는 하루에 30개씩 외
 우고 있고요.. 영어 구문인강을 따로 들어야하나요..?
 아, 탐구는 사문 생윤 이지영 쌤 개념들을겁니다.
 지적 많이해주시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 부탁드립니다~!!

국어 탐구 좋습니다. ^^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정승제 ‘개때잡’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 개때잡 3회독 이후에 다호라만 계속 파세요. 판거 하지말고요.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 개 써주면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 이나 실속 없습니다. 이것만 계속 돌리세요.
-----------	--

영어	영어 심우철 12시간 문법 + 독해 (총 45강) 2번 듣고 마더텡 기출 분석 -> 빈칸, 순서 앞 에서 이명학 ‘리로직’ 듣고 계속 마더텡만 + EBS추가 + 9월이후부터 독해 28문제 40분 컷으로 하루 1개씩 풀기
-----------	--

제 목 예비고3 공부관련 질문입니다.
 보낸 사람 kks26692 (난사) 487188받은시간 2015-01-02 19:30:26

제 성적은 모의고사는 370점대 연수외물1 지1 각각 11211의 등급 정도 나오는사람입
 니다.

과목별 공부 계획이
 국어 : 훈련도감, 마닿 2~3회독 이후 ebs 로 생각하는데
 공부계획테클이랑 문법 강의좀 추천해주세요 ㅠ(박광일 문법 들을까요?)
 수학 : 손광균수리논술 + 알텍 적통 + 문해전 or 크포 + 현우진드릴, 파이널 + 실전
 모의고사 + 수비 + 한완수
 로 생각중인데
 1. 문해전이나 크포를 굳이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풀기만 할지(2015년도 책은 전부 있
 습니다.)
 2. 한완수는 확실히 볼건데 수비는 한완수를 보는데 굳이 봐야할가요?
 3. 공부 계획테클이랑 더 추가해야될 계획 추천좀요.

<p>영어는 학원 다니면서 구문, 단어 정리하려고요. ebs도 하고</p> <p>님 글에서 과탐은 풀커리를 타는게 좋다는 말을 봤어요... 그래서 물1은 배기범쌤 풀커리탈 예정인데 지1은 굳이 풀커리를 타야되나 해서요.</p> <p>지1은 천체만 들으면 될것 같아서 그러는데 ㅎㅎ</p> <p>지1은 천체만들으면 되겠죠?</p> <p>마지막으로... 수리논술 열심히 하면 가능성 있겠죠?</p>	
국어	<p>박광일 문법 따옴표 듣거나 초단기!국어문법 책 1권만 하면 충분합니다.</p> <p>나머지는 아주 간결하고 좋습니다. 마뭉만 돌리세요.</p>
수학	<p>1. 들으세요. 어떤 원리로 푸는지 이걸 들어야 좋습니다.</p> <p>2. 아노 아주 불필요합니다. 한권만 보세요.</p> <p>3. 더 추가할 것 없습니다. 절대 더 추가하지 마십시오.</p>
탐구	<p>전체가 까다롭긴 합니다만,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풀커리타는게 안전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1.2배속으로 들으십시오.</p>
수리논술	<p>중요한 것은 인강이 아니라 학교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p> <p>학교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것만 분석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p> <p>다. 부지런히 원하는 학교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세요. 시간핑계 대지 마시고요.</p> <p>제발 하십시오.</p>
제목	질문드렸는데 내용 추가합니다 ㅎ
보낸 사람	shinoosu (멘봉의정석) 370439
받은시간	2015-01-02 21:32:40
(개인사정 중략)	
<p>중3때까지는 반에서 5등안에 들정도로는 공부를 했었고요.</p> <p>고등학교때는 병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p> <p>검정고시후 제대로된 수능 공부없이 고2때 친 수능에서 433 33 등급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p> <p>수학은 그때 정승제 개념때려잡기만 듣고도 수능에서 3등급나왔으니 다시 정승제 커리큘럼 고등수학부터 타면 되지않을까 싶기도 하고..</p> <p>영어도 빨리 선생님을 선택해서 구문,단어,문법,듣기 - 리딩스킬-ebs정리강의 이렇게 나가야 할것 같은데요..</p> <p>특히나 국어는 내신국어,문학,독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할지 애매하네요..T</p> <p>특히나 수학,영어 변별력이 떨어져서 국어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던데요...</p> <p>국어는 시작자체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T</p> <p>지문독해를 어떤마음가짐으로 해야할지도 모르겠고..</p>	

지문을 먼저읽어야하는지, 문제를 먼저봐야하는건지...
 시는 어떻게 읽어야하는건지... 시에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을 4년전에 했던 사문,윤리로 할지, 다른걸 선택할지도 고민되고..
 제2외국어는 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고민되네요..TT
 답변부탁드립니다. TT (특히나 국어좀 기반없이 어떻게 시작해서 나아가야할지 부탁
 드려요.TT)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이후에 정승제 '개때잡' 나가면서 고등수학
 부분은 나올때마다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십시오. 고등수학을 기본서로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재미 없습니다. 개때잡 3회독 이후에 다호라만 계속 파세요.
 판거 하지말고요.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 개 써주면 보기에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
 이나 실속 없습니다. 이것만 계속 돌리세요.

국어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닳도록 -> 마르고 닳도록 -> 박광일 '따옴표' -> 마르고 닳도록
 -> EBS추가 -> 국가 대표 모의고사 등 사설 모의고사 9월부터 하루에 1개씩

영어 이명학 풀커리 + 마더텅 + EBS
 일리 신택스1.0 리로직 공감어법 신택스2.0 그블

탐구 사문, 윤리 -> 스키이에듀 이지영 풀커리

제2외 5월부터 베트남어로 풀커리, 무조건 할 것

제 목 저도 답장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 517691
 받은시간 2015-01-02 23:38:27

저는 예비 고3 이과생인데요!
 고1 11월 모의고사 때 1 1 1 찍었지만 1년이 지난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처참하게 1
 4 2를 찍었어요..
 항상 국어, 영어는 1~2등급, 수학은 1~4등급 왔다갔다하는 편인데
 어떻게 확실한 1등급으로 올릴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전 독학 스타일이라 인강이나 학원은 최대한 덜 추천해주셨으면 해요! ♡

국어에서 제가 진단한 문제점은
 일단 비문학은 저는 저 나름의 체계를 세웠다고 생각해서 기출을 풀려고 해요!
 저는 마달 2014년 판 1권이 있어요.
 화작은 기출로 차분하게 해 보려고 하고요.

문학, 문법이 문제인 것 같네요 ㅠㅠ

문학은 고1 겨울방학 때라고 해나 되나? 1년 전에 윤혜정 선생님 개념나비 문학 파트만 들었는데 많이 잊었어요 ㅠㅠ 그리고 기출 풀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감으로 풀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저는 비문학보다 문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문법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감으로 풀거나 수업 시간에 들은 거 되살려서?

혼자 정리한 적은 없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확실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혼자 할 교재 추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ㅠㅠ

혼자 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강의 추천해주셔도 돼요! 부담 없는걸로..?

영어는 제가 단어가 부족한 게 확실히 느껴져서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려고 하고 기출문제집 풀려고요! ㅎㅎ 괜찮겠음?

그리고 영어도 문법이 문제예요! ㅠㅠ

수업 듣고, 문법 문제집 풀고 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없진 않은데 중구난방인 느낌?

저 혼자 정리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래머존 기본편vs종합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단권화해보려고 해요!

혼자 할 수 있겠죠..? 둘 중 뭐가 더 나올까요?

수학.. 에휴..

이번에 4등급 뜬 건 실수+마인드컨트롤 문제가 컸기도 했고..

다 변명이죠 뭐 ㅠㅠㅠㅠ 1, 2등급 뜨다가 갑자기 4등급 떠서 절망이 컸네요

이과인 만큼 이번 겨울 방학 때는 개념 확실히 복습하려고요!

교과서랑 제 필기를 기준으로 개념을 잡고 복습용 개념서 한 권 풀려고 하는데 ㅎㅎ

지금 생각하는 복습용 개념서는 정석(적통이 없다는게 단점 ㅠㅠ) vs 개념썸 vs 익힘책입니다! 골라주실 수 있나용..

또 겨울 방학 때 시간이 날진 모르겠지만 유형서? 같은 걸 풀다면 뭘 추천하시나요

그냥 입 닫고 연계교재 나오면 신속히 풀까요?

자이스토리 수1 있고 RPM, 썸은 시리즈별로 다 있는데..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ㅠㅠ!

닉네임과 아이디는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어	조단기!국어문법/ 문학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수학	수학의 바이블.